



방생



일이 잘 풀려 나가지 않을 때 집안에서 발길질 할 수 있도록 자연이 만들어 준. 부드러운서도 결코 부수어지지 않는 자동인형 같은 것'
A. 비어의 냉소적이면서 뼈뺀하기 그지없는 '악마의 사전'에 나오는 고양이 항목의 설명이다. 이른바 애완 고양이를 두고 한 말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개를 전용 교회, 애완동물 의료보험이 추진되는가하면 전 재산을 애완동물에게 물려주는 이도 있고, 드디어는 지난 6월 독일에서 인연에 버금가는 '동물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 정도는 아니나 한국에서도 이제 애완동물을 '살다'하지 않고 '입양했다'로 표현할 만큼 애완동물 붐이 거세다.
그런데 비어스는 왜 고양이를 집안에서 발길질이나 당하는 천덕꾸러기로 표현한 것일까. 사실 거북한 말씀들만이 아닌 뼈뺀 표현에도 진실은 있는 법이다. 기르는 동물을 진정 가족보다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을 빼고, 대부분은 발길질이나 내다 버리는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애완동물 한국인 프랑스 파리에 바깥서 헬만 되면 주인식구들이 풍망 놀러 가면서 내다버리는 애완동물들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병들거나 늙으면 버림받는 것은 당연해서 도심 공원이나 인근 녹지 야산에는 슬쩍 내다버려진 병든 애완동물의 모습이나 시체 보기가 어렵지 않다. 그런 동물들이 서울에 연 3천여마리가 넘는다는데, 인간에 의해 사육된 동물들이 자연에 적응하기는 쉽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애완동물에게 몇 톨만 물려보면 '애완' 아닌 '학대' 현장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애완'이란 이름으로 동물에 저지르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나온 '방생지침서'를 보면 '무분별한 방생과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간섭'을 경계하는 것으로, 방생에 대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 준다. 여기에 애완동물의 그 '애완'이란 말의 이중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애완동물의 방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연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김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불교달력 사용



불자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교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9명이 응답한 불교 뉴스네트즌 설문조사

"가정·직장서 사용" 90.7%

결과 117명(90.7%)이 불교달력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명(9.3%)에 불과했다. 불교달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49명(38.0%)이 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40명(31.0%)이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어서, 25명(19.4%)이 음력을 보려고, 15명(11.6%)이 사진그림이 좋아서 라고 답했다.

김두식 기자

미국 대사관측은 오는 2008년까지 아파트와 근린을 숙소, 미대사관 청사 옛 덕수궁터 위엔 중구 정동 1-8번지, 1-39번지에 단계적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면적으로 따지

는 한 마디로 과거 문화유산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 정부와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가 한데 맞물려 이와같은 비극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덕수궁의 모습은 원래 규모에

습인 것이다. 과거 일제가 물러간 뒤 미군정을 거쳐면서 일제에 의해 분할되었던 옛 덕수궁 터에 미국이 다시 들어왔다. 우리로서는 옛 덕수궁터를 회복했어야만 했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6년 경기여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나머지 옛 덕수궁 터마저 미국측의 소유

미국 측의 외교적 편의만이 고려되었을 뿐,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역사경관 보호 등 주권국의 문화주권은 철저히 뒷받침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계획이 미국무성의 주도하에 수립되고 지난 50여년에 걸쳐 추진되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어떠한 입장도 뚜렷이 내세우지 못했

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 문화유산에 대해 무지했던 정부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라도 그곳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며, 더군다나 매장 문화재가 현존해 있는 궁궐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국 측에 대해부지를 마련해주고 보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대형 대사관이 들어섬에 따라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정동일대 역사경관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열쇠는 서울시가 쥐고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의 모습으로 미국측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조정업무에 나서야 한다. 궁극적으로 덕수궁을 포함한 중구 정동일대의 근대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지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덕수궁터 보존, 美엔 대체 부지를

비해 매우 축소된 형태다. 대한제국 시기의 면적에 비해 1/3가량 축소된 규모이며, 건물 칸수로 따지면 1/10 규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왕조사회에서 궁궐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국권을 상징했기 때문에 덕수궁을 포함한 대부분의 궁궐들이 일제치기기를 통해 분할, 매각 처분되는 등 철저한 수난을 겪었다. 지금의 덕수궁 또한 그 수난의 결과로 남아 있는 모

로 넘어갔다. 서울시와 미대사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양해각서가 뒤늦게 공개되어 시골시골하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간 불명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을 다름 아 니기 때문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대사관 청사를 계획하면서 약 70미터 규모의 15층 건물을 무조건 짓도록 한 다는 것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과 같은 규정도 무시되었다. 이는

면 것이다. 이에 대해 하계,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하고 나왔지만 미국 측의 입장에 단호하다. 그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예정부지를 매입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궁궐터라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친 뒤 예정 대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

불자 세상보기



강임산 '한국의 재발견' 사무국장

면 과거 경북궁 위에 세워졌던 조선총독부의 1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

문화재청이 2003년부터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금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다고 발표하자, 불교계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의 유용을 막기

열린마당

문화재정비사업 지자체 발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찰의 문화재 보수 작업 공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설명과 불교계의 반대 의견을 들어본다.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찬성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보수기술자 등 개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무자격 보수기술자를 고용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

자, 설계자 등으로 시·군·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정산 등 공사진행 상황을 공청하고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다. 또 기술직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승인된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급시에는 감독관이 현장에서 자재(목재 등)의 재질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감독관의 현장 확인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반대 원행스님(무주 안국사 주지)



원행스님

문화재청의 방침과 같이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찰의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저효율성, 시정업체에 대한 관리통제 불가능 등으로 현재의 사찰 직영공사

비용 투명한 회계처리위해 불가피

재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직접 발주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추진방향을 하달했다. 이 경우에도 문화재 수리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하자담보 이행방안을 확정한 후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담당관과 공사감독관, 사업시행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노임대장, 자재구입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정산서류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문화재 보수비 유용으로 문제가 된 범여사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에서 문화재 보수를 추진하는 경우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은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사찰문화재 보수 창출주체가 해야

방식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화재는 국민들의 여가와 정서 함양에 있어 외부경제 효과가 매우 높은 공공자산이다. 이를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지배에 의존해서 공공적 가치를 부여하려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사찰의 문화재는 스님과 불자들이 종교적 행위와 수행의 대상으로 손수 조성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직영공사 배제방안은 경제논리와 상충주의, 권료주의적 발상으

영리적 접근에 의한 문화재의 가치 지속과 창출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현재 문화재의 보수는 곧 훼손이라는 등식과 인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정신적 가치 실현과정인 사찰문화재는 반드시 사찰직영공사에 의해 사찰과 스님들의 참여로 자기책임성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책적으로 스님들이 사찰문화재 보수 유지의 기능과 기술자적 입장이 되도록 육성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특자투고 '9·11' 아직 끝나지 않았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여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피해를 가져다 준 9·11 사태는 가해자의 목적이거나 명분에 상관없이 비인간적이며, 폭력적 수단은 합리화 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대응도 일방적·폭력적으로 진행돼,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갈등과 보복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서서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정신이 요청되고 있으며, 참회와 용서, 화해와 사랑 없이는 지구 전체에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의 복지는 이룩할 수 없음을 분명하다. 9·11 사태의 처음 피해자는 미국인들이었지만, 그 이후의 피해자는 일부 가해자 그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양민과 나아가 세계인 모두이다.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로 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강자의 논리를 고집하는 미국의 대응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사에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아와 질병 및 주거시설의 불편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전쟁을 수행한다면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여야. 기존의 인간과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정의 및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진원(한국공교연합선도기구 대표)

송광사 가을 학술회의

원감국사 충지(沖止)의 생애와 사상

= 학술회의 일정 =

기조강연 : 고려 선종과 송광사 / 민영규(연세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 원감국사의 생애와 사상 / 김영대(동국대 명예교수)
원감록을 통해본 원감국사의 국가관 / 진성규(중앙대 사학과 교수)
원감국사의 유적유물에 관한 고찰 / 최인선(순천대 사학과 교수)
원감국사의 차시에 관한 연구 / 박완식(전주대 교수)

일시 : 불기 2546년(서기2002) 9월 29일 9:00~16:00
장소 :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



원감국사 진영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현봉 합장

조계총림 송광사는 한국불교사상 가장 많은 고승들을 배출해온 승보종찰로, 지금도 여법한 출가수행들의 상주처이며 세상의 귀의처입니다. 송광사는 해마다 가을에 대덕 석학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열어 이 산문 출신의 고승들이 남기신 거룩한 자취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불교적 사회인식을 제고하고 현대인들의 삶에 좌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제 6국사로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沖止) 스님의 다선(茶禪)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감국사에 대해서는 이미 송광사가 지난 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원감국사의 유물인 원대(元代) 티베트 문서를 규명하여 당시 동아시아 교류에 대해 새로운 학설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끈바 있습니다. 13세기 고려시대의 송광사 선풍을 오늘에 재 조명하는 올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